

# 일본 핀테크 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 목 차 -

<b>I. 일본 핀테크 시장 현황</b> .....	<b>2</b>
가. 일본 핀테크 시장 현황 및 환경/특성.....	2
나. 일본 핀테크 주요 이슈.....	4
다. 일본 핀테크 주요 기업 현황.....	8
<b>II. 일본 핀테크 산업정책 동향</b> .....	<b>14</b>
가. 일본 정부의 핀테크 산업 추진 방향.....	14
나. 일본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 동향.....	16
다. 일본 정부의 핀테크 관련 실증사업 사례.....	20
<b>III. 시사점 및 제언</b> .....	<b>23</b>
가. 국내 핀테크 지원 정책과 비교 분석.....	23
나. 국내 핀테크 산업 정책 제언.....	25
<b>&lt;주요 참고문헌&gt;</b> .....	<b>27</b>

## I 일본 핀테크 시장 현황

### 가 일본 핀테크 시장 현황 및 환경/특성

- 日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핀테크 시장규모\*는 2017년 1,503억엔에서 2022년 1조 2,102억엔으로 연평균 51.77% 성장 예상  
\* 핀테크 계열의 벤처기업 매출액 기준

<일본 FinTech 기업의 시장규모>

(단위 : 백만엔)



자료 : 야노경제연구소

-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일본에는 약 200개의 핀테크 관련 벤처기업이 결제, 대출, 클라우드 펀딩,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중
- 일본은 2017년부터 비금융계 대기업과 핀테크 벤처, 또는 IT 벤처와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금융기능을 도입하는 이종 협업이 급증

- 최근 금융기능이 쇼핑 등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무의식적으로 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Embedded Finance(임베디드 금융)>이 부상 - 이를 통해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동시에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도 부담 없이 금융 서비스를 도입 가능

### <일본 핀테크 시장의 트렌드 변화>

레거시 금융 서비스	언번들링	리번들링	임베디드 금융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결제 회사 등	핀테크 벤처	비금융대기업x핀테크벤처, 테크벤처x금융기관	핀테크 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금융 기관</li> <li>✓ 이전부터 시스템화 진행</li> <li>✓ 대면을 원칙으로 한 서비스 설계, 시스템 설계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대응 지연</li> <li>✓ 보안에 대한 대응을 의식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고 있는 대신, 개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해 온 서비스를 WEB 및 스마트폰에 특화하여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용자 획득</li> <li>✓ 동시에 금융 기관의 개방 혁신에 대한 노력도 가속화되어 금융 기관이 핀테크 벤처와 경쟁하는 방법을 찾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핀테크 서비스가 많이 탄생</li> <li>✓ 특히 비금융 대기업과 핀테크 벤처가 연계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번들링의 큰 흐름 속에서 기존 플랫폼에 코드를 내장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증가</li> <li>✓ 속도감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응</li> <li>✓ 라이선스 및 규제 대응 및 유지 보수 단순화와 같은 이점 존재</li> </ul>

자료 : 산케이비즈

- 향후 일본 핀테크 시장은 니치마켓(Niche market), 실시간(Real-time), 강화(Empowerment) 등 3개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일본 핀테크 시장의 3대 키워드>

구분	세부 내용
니치마켓 (Niche market)	까다로운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세밀한 대응
실시간 (Real-time)	이용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실시간 대응 ex) 1~2개월이 소요되는 자금 조달 시간을 실시간으로 조달
강화 (Empowerment)	개인을 강화하기 위한 여신 기술 지원

자료 : 산케이비즈

## 나 | 일본 핀테크 주요 이슈

### a 정치 부문 주요 이슈

- 주식회사 센쿄는 2022년 6월 정치 양케이트 참여자 전원에게 사례금을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전원 돈 선물 by 센쿄> 캠페인 실시
- 당사는 디지털 기반의 선거·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스마트 선거> 플랫폼 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등 다양한 층이 이용 중

#### <센쿄사의 캠페인 개요>

- ▶ 캠페인 기간 : 2022년 6월 10일(금) ~ 2022년 6월 20일(월) (총 11일간)
- ▶ 당첨 금액 : 「100엔」 「1,000엔」 「1만엔」 「10만엔」 「100만엔」 등 전자화폐
- ▶ 전자화폐 수령 : 핀테크 기업인 ARIGATOBANK가 제공하는 기부 플랫폼 앱 'kifutown'(iOS 및 Android)에서 전자화폐로 수령 가능

자료 : 日ITmedia(2022.6)

- 양케이트는 <자신이 정치가였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답하는 18개 질문으로 구성되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엔까지 전자화폐 제공
- ※ 양케이트 참여는 LINE 계정으로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 <센쿄사의 캠페인 홍보 포스터 및 모바일 참여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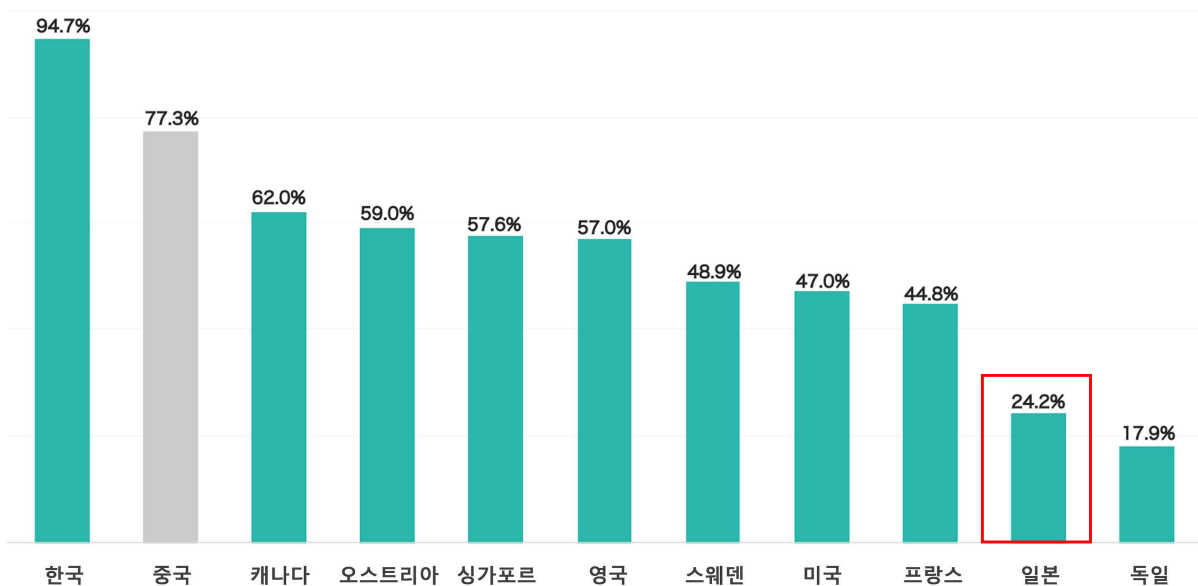


자료 : 日ITmedia(2022.6)

## b 경제 부문 주요 이슈

- 日캐시리스추진협의회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일본의 비현금 결제\* 비중은 24.2%로, 한국 94.7%, 중국 77.3%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
- \* 모든 대금 결제 행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의 대체 수단으로 결제

### <세계 주요국의 비현금(Cashless) 결제 상황(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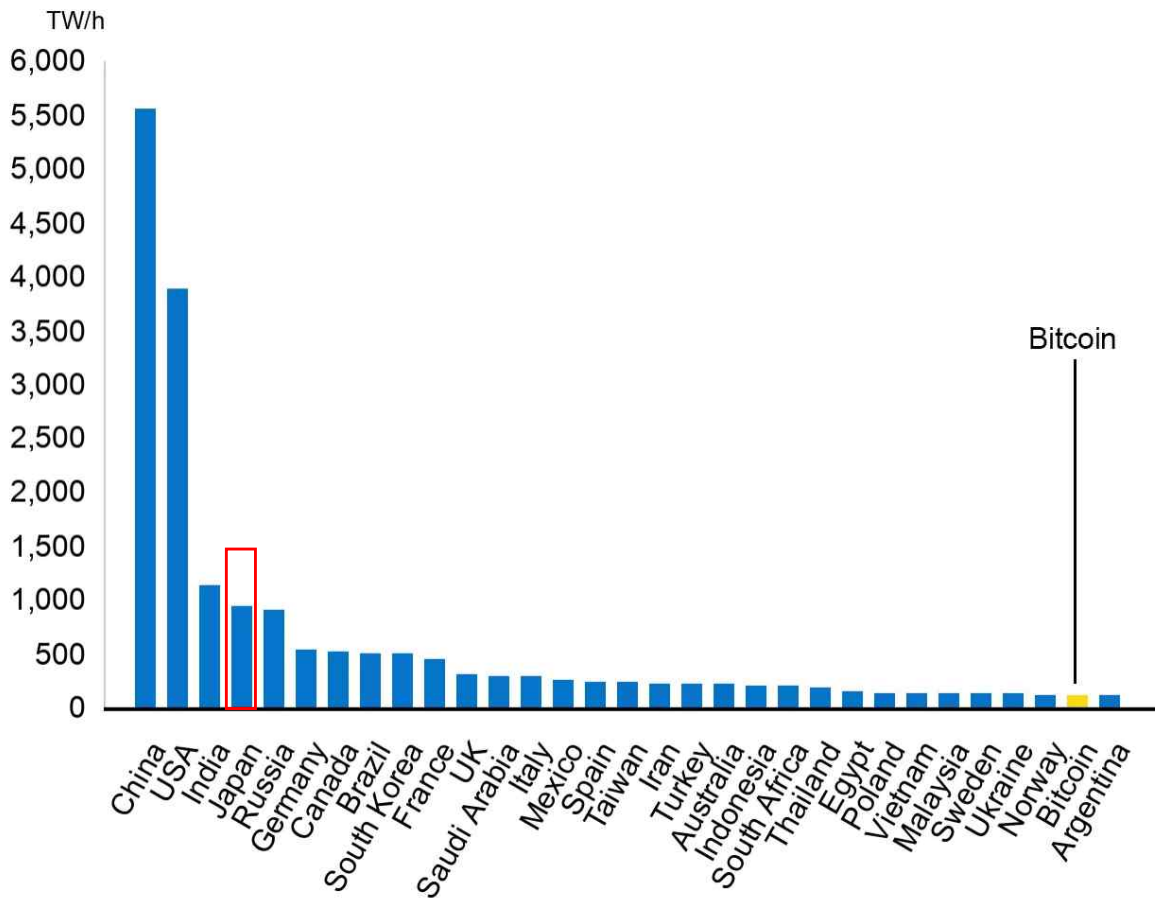
자료 : 日캐시리스추진협의회(2021.3)

- 그러나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비접촉 소비가 증가하면서 비현금 결제 도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협회에 따르면 특히 일본 내 QR코드 송금액은 2018년 8,325 백만엔에서 2021년 352,085 백만엔으로 40배 이상 폭증
  - ※ QR코드 시장의 급성장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그룹, NTT도코모 등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 경쟁도 영향을 미침
-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금융 분야의 국내총생산 25조엔 달성>, <2025년 6월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율 40% 실현>을 추진 중

## c 사회 부문 주요 이슈

- o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에너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암호화폐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초래하고 있음
- o 암호화폐 채굴·거래 시 대량의 전력이 소모되며, 비트코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21.36TWh로 아르헨티나의 연간 소비량 초과
  - ※ 일본은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이어 전세계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량의 4위 차지

〈비트코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자료 : BBC(2021.2)

- o 또한 2021년 9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로 중국 채굴업자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문제\* 야기

- \* 중국 채굴업자들이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전력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전력망 과부하, 정전, 탄소배출 증가 등의 에너지 문제 발생
- 이에 일본은 2021년부터 핀테크 분야에서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일본 핀테크 분야의 SDGs 및 ESG 경영 사례〉

- ▶ 도쿄市는 탈탄소를 위하여 그린파이낸스 시장 발전 및 핀테크 기업의 유치·창업을 지원하고자 <국제금융도시·도쿄 구상 2.0> 발표(2021.11)
- ▶ 핀테크 사업을 추진 중인 미쓰비시 UFJ社는 모든 지점에 탈탄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로보드社와 협업 개시(2022.4)

자료 : 도쿄시(2021.11) 및 미쓰비시 UFJ(2022.4)

- 日핀테크협회는 이러한 SDGs 및 ESG에 대한 관심이 기업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부터 개인 생활까지 침투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환경(E)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지배구조 등 사회(S) 및 거버넌스(G)로 확대될 전망

## 다 | 일본 핀테크 주요 기업 현황

### a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2019년 3월 디지털 화폐인 <J코인>을 발행하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고 결제할 수 있는 <J코인페이> 출시
- \* 자본금 약 2.2조엔 규모의 일본 대표 금융지주회사이며 미즈호 은행, 미즈호 증권, 미즈호 신탁은행 등 미즈호 계열 기업들의 모기업

####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J코인페이 개요>



자료 :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여 은행 예금 계좌에서 J코인을 충전 후 J코인 가맹점에서 결제 및 개인 간 송금 가능
- ※ 입출금, 송금, 지불 등 모든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로 책정
- 최근 요미우리 신문(2022.8)에 따르면 당사는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市에서 <J코인>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코인\* 발행
- \* 가칭 <아이즈 코인>으로 현지 슈퍼마켓에서 사용 가능



- o 아울러 당사는 메이지 야스다 생명과 연계하여 아이즈 코인 결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 ※ 보험 계약자의 건강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활 습관 개선
    - ex)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식품의 영양소로부터 이용자의 식생활을 추정하여 염분의 과잉 등을 알리고 건강 메뉴 제안

## **b**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 o Global Mobility Service(이하 GMS)는 2013년에 창업하여 글로벌 <Mobility×IoT×FinTech>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일본 스타트업
  - ※ 日경제산업성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J-Startup>에 선정(2018)
- o 당사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전세계 17억명의 빈곤층에게 Io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창업의 목적
  - ※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ASEAN 각국에서 서비스 제공 중
- o 당사가 개발한 MCCS\* 및 MSPF\*\*을 활용하여 당사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인 <GMS 마이카론>을 제공 중
  - \* Mobility-Cloud Connecting System은 다양한 모빌리티의 원격 기동 제어·정보 센싱이 가능한 IoT 디바이스
  - \*\* Mobility Service PlatForm은 각종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석할 수 있는 Open API

### <GMS 마이카론 개요>



자료 : Global Mobility Service

- 마이카론 이용자의 차량에 탑재된 MCCS가 수집한 데이터(주행상황, 속도 등)를 MSPF로 분석하여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평가
  - ※ 만약 분석 결과가 나쁠 경우,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한 차량의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원격에서 통제하여 대출 상환 촉진

### <MCCS 외형 및 장착 사례>



자료 : Global Mobility Service 및 NIKKEI ASIA

## c 페이디

- 당사는 2014년 10월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서비스(BNPL\*)인 <페이디(Paidy)>를 런칭
  - \* Buy Now Pay Later는 이용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비용으로 상품 구매 대금의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 <페이디 서비스 프로세스>



자료 : 페이디

- 페이디 서비스는 단순한 사용자 경험, 편리한 후불 결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관리 등을 통해 일본 대표 핀테크 서비스로 성장  
\* 실물 카드 발행 시 Visa 마크가 있는 상점에서도 이용 가능

### <페이디 서비스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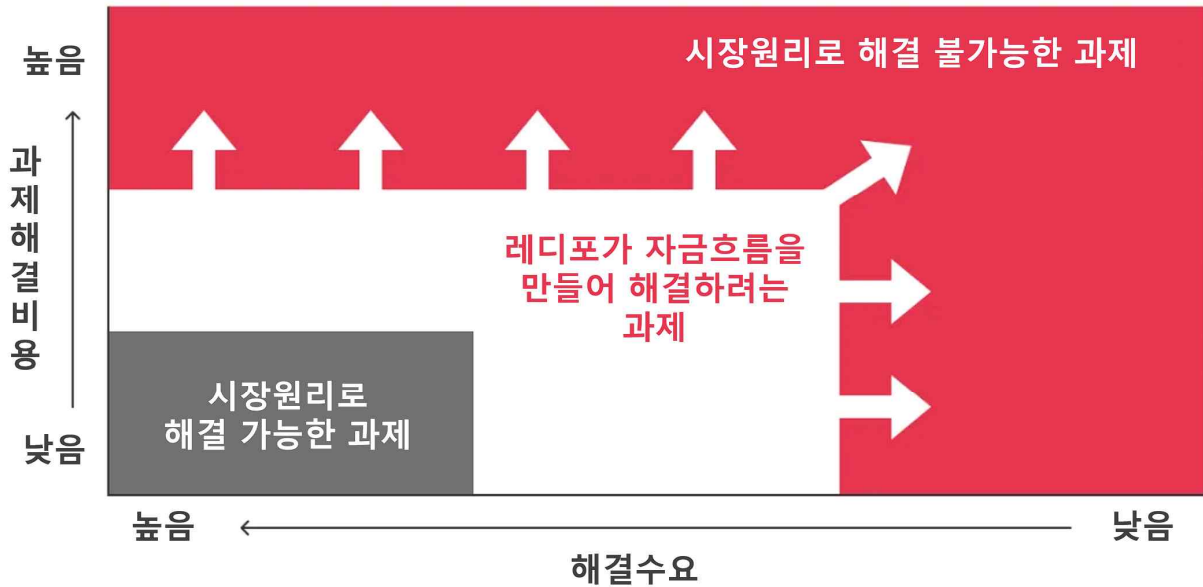
자료 : 페이디

- 2021년 9월 미국의 인터넷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社가 27억 달러 (약 3000억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됨
- 향후 페이팔社는 Paidy의 활용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의 결제 시장에서 기능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존재감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

## **d** 레디포

- 당사는 2011년 3월 일본 최초의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레디포 (READYFOR)을 제공 중인 스타트업  
※ 2019년 日경제산업성이 주체하는 일본 벤처 대상인 「경제산업대신상」 수상
- 당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 과제(의료, 연구, 지역, 문화 등)를 대중의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 2022년 7월 현재 비정부 기구 등을 위해 약 2만건의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누계 지원액 280억엔 확보

## <레디포의 타겟 시장>



자료 : 레디포

- 당사는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2년 7월 총 17억엔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 받으면서 누계 조달액 33억엔 확보

## <레디포의 향후 서비스 확대 방향>

### 클라우드 펀딩 사업



#### 클라우드 펀딩 사업

READYFOR는 충실한 지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달성률을 자랑하는 일본 최초, 국내 최대급의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 기부·보조금 매칭 사업



#### 유증 기부 지원 서비스

「READYFOR 유증기부 서포트 서비스」는 유증기부·생전 기부를 검토하고 있는 기부 검토자와 사회적 단체와의 매칭이나 포괄적인 서포트를 제공



#### 계속기부 서비스

READYFOR 계속 기부는 2022년 2월에 발표한 사회적 활동 단체가 게재료 무료로 매월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서비스



#### 기금·기부·보조금 기획 운영 서비스

「기금·기부·보조금 기획 서비스」에서는, 재단·기업·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자금 분배에 있어서, 기금 운영·사무국 운영·조성 단체의 일대일 지원 등의 서포트를 실시

자료 : 레디포

## e 애니포스

- o 일본은 반려동물의 장수화에 따른 의료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본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매년 20% 성장 중이나 편의성이 부족한 상황
- o 이에 수의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창업자가 일본 동물 의료 현장에서 직접 느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애니포스 창업
- o 당사는 진료 명세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반려동물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중
  - ※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애완동물소액단기보험주식회사, SBI PRISM SSI, au insurance 등과 업무 제휴 체결 중
- o 병원에서 받은 진료 명세서 원본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동물 구호 단체에 애니포스가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하도록 운영
  - ※ 2022년 4월까지 기부 누계 금액이 100만엔을 돌파했으며, 2022년 상반기 동안만 6회에 걸쳐 총 426,510엔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 <애니포스 서비스 프로세스>



STEP1

진료 명세서  
원본 확보



STEP2

진료 명세서  
애니포스 앱으로  
촬영 후 업로드



STEP3

등록된 계좌에서  
보험금 입금

자료 : 애니포스

## II 일본 핀테크 산업정책 동향

### 가 일본 정부의 핀테크 산업 추진 방향

- 일본은 옛것을 고수하려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디지털화가 지체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동안 아날로그 수준의 행정 치부\*가 드러남
  - \*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이메일이 아닌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자들은 출근부 및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
- 이러한 아날로그 고수 현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
  - 일본인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등 비현금보다 현금을 선호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지연되고 있음
    - ※ 일본의 비현금 결제율은 24.2%로 한국(94.7%), 중국(77.3%) 등에 비해 크게 뒤쳐졌으며, 디지털뱅킹 이용률은 약 7%로 세계 최하위 수준

#### <일본의 핀테크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발표시기	제목	주요내용	발표처
2017.4	은행법 등 개정	가상화폐 업체 등록제 도입 및 은행의 IT 기업 등 비금융기업 투자 허용	금융청
2017.6	미래 투자 전략 2017	관련 업체, 기관 등의 실증실험 지원을 위한 <FinTech 실증 실험 허브> 설치	내각부
2018.6	미래 투자 전략 2018	블록체인 기술, 타임스탬프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등	내각부
2019.7	성장 전략 2019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관련 규제 정비	내각부
2020.7	성장 전략 2020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 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 규제 마련	내각부
2020.10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일본은행의 대처 방침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기능·역할·특징, 도입 시 고려사항, 향후 정책 등 안내	일본은행

2021.3	캐시리스 로드맵 2021	2025년까지 비현금(Cashless) 결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캐시리스 추진협의회
2021.7	<디지털·분산형 금융에 대응하는 방식 등에 관한 연구회> 설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금융 디지털화 속에서 민간 혁신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연구	금융청
2022.1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 제언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내에서 이용하기 위한 관련 업계 제언	일본암호자산 비즈니스협회
2022.6	자금 결제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 고액 선불식 지불 수단 등에 대한 규제	금융청
2022.6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	블록체인 기반의 NFT 등의 전담을 위한 <Web3.0 정책추진실> 설치	내각부

자료 : 일본 내각부, 금융청 등 정부부처 발표자료를 취합·정리(2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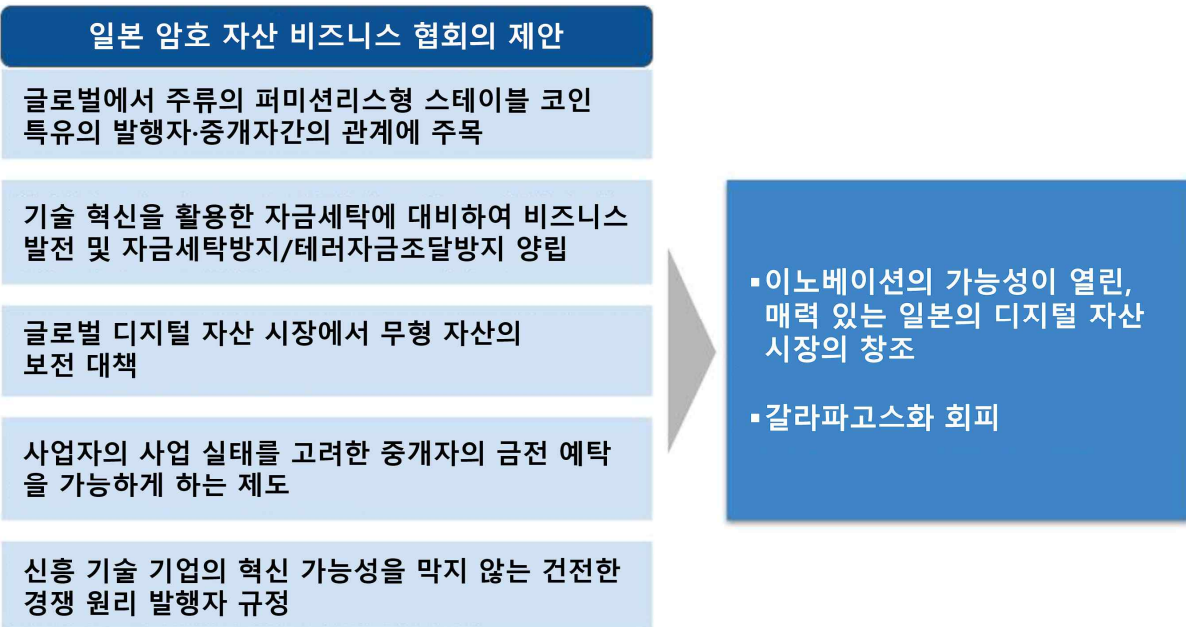
- 뒤쳐진 디지털化에 대한 위기감이 2020년대부터 고조되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핀테크 분야에서 포착됨
- 2020년 日내각부의 <성장 전략 2020>을 필두로, 금융청, 일본은행 등은 디지털통화, 스테이블코인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실행
  - ※ 일본은 내각부가 핀테크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가 규제 및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수립하고 형태를 띠고 있음
- 특히 테라 사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2022년 6월 日금융청은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대책 마련
- 아울러 내각부는 동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을 통해 선제적으로 NFT에 대응하기 위한 <Web3.0 정책추진실> 설치

## 나 | 일본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 동향

### a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 제언

- 법정 통화와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7조 3,000억엔을 넘어서고 있으나 일본은 법규제로 인해 취급 불가
- 이에 금융청이 사무국을 맡은 <금융심의회>의 <자금결제워킹그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표(2022.1.11)
  - \*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등 논의
- 이후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에서 상기 보고서를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제언>을 공표(2022.1.19)
  - \* 2016년에 설립되어 암호화 자산 관련 비즈니스 정보 공유, 회원사 의견 수렴, 업계 이슈 해결을 위한 제언 등 암호자산 사업 환경 정비·촉진

####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 제언의 주요 내용>



자료 :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2022.1)



## **b** 자금 결제법 개정

- 2022년 5월 테라가 달러와의 연동이 붕괴\*되면서 가격이 폭락한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 \* 테라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T(테라 USD)와 거버넌스·스테이킹 토큰 LUNA(루나)는 이상징후 발생 후 4일만에 고점 대비 -99% 폭락
- 이에 日금융청은 2022년 6월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 코인, 고액 선불식 지불 수단, 거래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 \* 정식 명칭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결제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자금 결제법 주요 개정 내용>

- (1) 전자 결제 수단 등(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
  - 전자 결제 수단 등 취급업 등의 창설
- (2) 고액 전자 이전 가능형 선불식 지불 수단에 대한 대응
- (3) 은행 등에 의한 거래 모니터링 등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
  - 환 거래 분석업의 설립 등

자료 : 日금융청(2022.6)

- 특히 본 개정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관리·유통 역할, 규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관리를 담당하는 <발행자> 및 유통을 담당하는 <중개자>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 발행자는 규제·감독이 쉬운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 한정되고, 중개자는 등록제이며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요구됨
  - ※ 금융청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에게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가능

## 〈개정된 자금 결제법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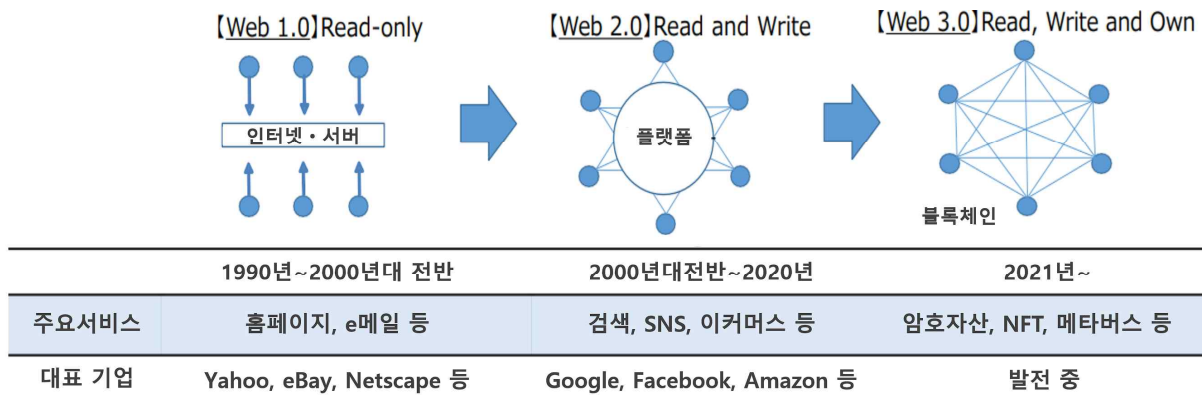
- ▶ 디지털 머니 유사형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 이것을 중개하는 업자를 「전자 결제 수단 등 취급업자」라고 정의하고, 이를 등록제로 규정
- ▶ 전자결제수단 등 취급업자에게는 암호자산교환업자와 같은 업무규제(정보안전관리, 위탁처에 대한 지도, 이용자보호조치, 이용자재산관리 등) 외에 금전 등의 예탁 받는 것 등의 금지, 발행자 등과의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
- ▶ 전자 결제 수단을 발행하는 은행 등 또는 자금 이동업자에게는, 자신이 발행하는 전자 결제 수단에 관한 전자 결제 수단 등 취급 업무를 인정
- ▶ 은행법에서 은행의 대리로서 전자 결제 수단을 중개하는 「전자 결제 등 취급업자」를 정의하고, 당업자를 등록제로 한 후, 금전 등의 예탁을 받는 것 등의 금지, 발행자 등과의 계약 체결 의무 등의 규제를 부과
- ▶ 금전신탁을 이용한 전자결제수단을 인정하고, 그 신탁수익권을 「특정신탁수익권」, 그것을 발행하는 신탁회사 등을 「특정신탁회사」라고 정의
- ▶ 특정신탁회사는 특정신탁한 거래에 한하여 자금이동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동업'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

자료 : 日금융청(2022.6)

### c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

- o 日내각부는 <새로운 자본주의에>라는 부제하에 <Web3.0>\* 등 핀테크 분야의 중장기 재정 지출의 취지를 명기하여 본 방침을 발표(2022.6)
- \* 플랫폼, 금융기관 등의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며, 주요 서비스로는 암호화 자산, NFT 등이 존재

### 〈Web1.0, Web2.0 및 Web3.0 비교〉



자료 : 日제일생명경제연구소(2022.6)

-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나 DAO\*의 이용 등 Web3.0의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검토를 진행기로 함
  -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은 중앙 집권적인 존재에 지배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됨
  
- 또한 본 방침에서는 보안토큰(디지털 증권)에서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도 정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의 완화 등 포함
  
- 이후 경제산업성 내에 분산된 Web3.0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 입안을 실행하기 위해 <Web3.0 정책추진실>\*을 발족(2022.7)
  - \* 국내외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 투자자, 법조, 엔지니어 등으로부터 수집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Web3.0 관련 사업 환경 정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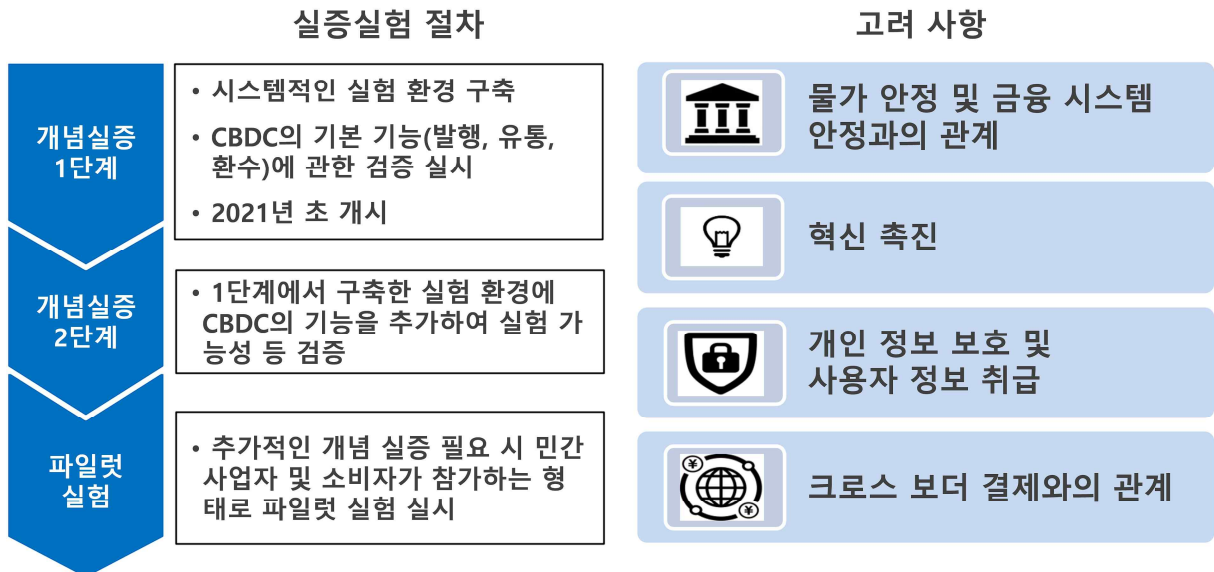
## 다 | 일본 정부의 핀테크 관련 실증사업 사례

### a | 일본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실증실험

- 일본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의 구현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CBDC 실증실험을 진행 중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음

#### <일본은행의 CBDC 실증실험 절차 및 고려사항>



자료 : 일본은행

- 개념실증 1단계\*는 시스템적인 실험환경을 구축하고 결제수단으로서의 CBDC의 핵심 기능에 대한 검증 실시(2021.4~2022.3)

\* CBDC의 기반이 되는 CBDC 대장(臺帳)을 중심으로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CBDC에 관한 기본적인 거래(발행, 지불, 이전, 수락, 환수) 가능여부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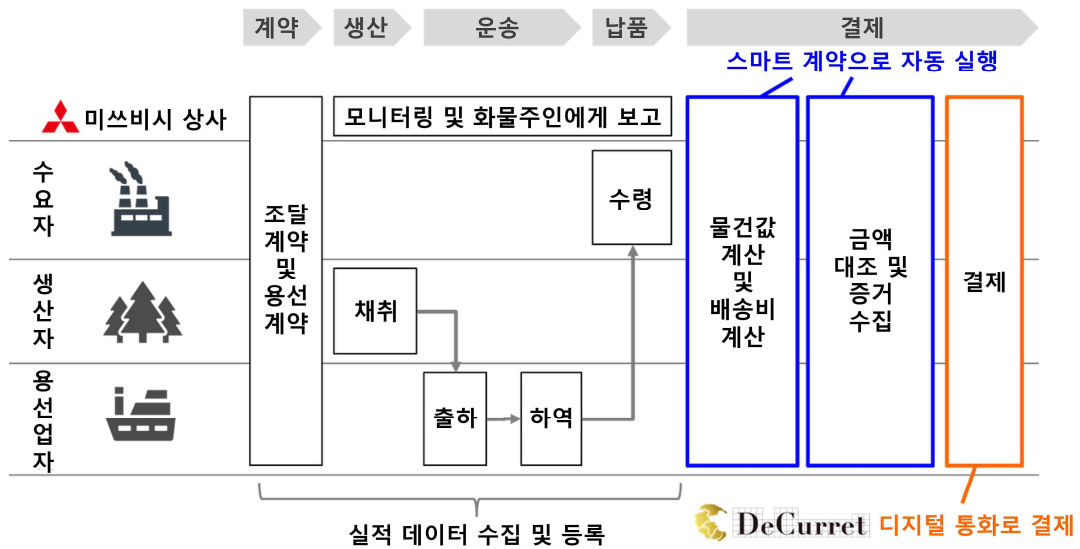
- 개념실증 2단계\*는 CBDC에 다양한 유관 기능 추가 및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진행 중

\*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불 오더 예약, 복수 계좌 보유, 중개기관간의 정보 제휴, 민간 결제 시스템·공금 시스템 등 검증

**b 미쓰비시 상사, 디지털 통화로 해상 수송 체선료 결제**

- o 미쓰비시 상사는 2022년 1월, 바이오매스 연료의 해상 수송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를 디지털 통화로 결제하는 실증실험 시행
  - ※ 미쓰비시 상사와 NTT가 공동으로 설립(출자비율 미쓰비시 상사 51%, NTT 49%)한 인더스트리윈의 협력하에 진행
  
- o 본 실증실험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는 가치 DCJPY이며 <디지털통화포럼>\*에서 엔화와 연동되도록 설계
  - \* 일본에서의 디지털 통화의 실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을 대표하는 은행, 소매, 운수, 정보통신 등 8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는 단체
  
- o 무역 거래 계약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안건의 등록부터 결제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진행 가능
  - ※ 본 실증실험에서 기업간 결제 관련 작업을 최대 8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

**<해상 수송 체선료의 디지털 통화 결제 과정>**



자료 : DeCurret DCP

- o 본 실증실험을 통하여 디지털 통화는 결제 건수가 많아 업무 복잡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c 하마마츠시, 하마나코 페이 실증실험

- o 하마마츠시(浜松市)는 日관광청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증가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 지역 통화의 도입을 검토 중
- o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지정된 숙박소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 관광 시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마나코 Pay> 실증실험 추진
  - ※ 실증실험 기간 : 2022년 1월 7일 ~ 2022년 2월 20일

#### <하마나코 Pay 사용화면 및 홍보 포스터>



店名	番	電話番号
山崎酒造	浜松市東区山崎町222	487-0601
ゆかりの川(バー)式茶屋(飲食店)	浜松市東区山崎町181	487-1111
ゆかり酒造	浜松市東区山崎町42	487-0288
ゆかり酒造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1
ゆかり酒造	浜松市東区山崎町203	487-0284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71
ゆかり酒造(山崎町181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81	487-0272
ゆかり酒造(山崎町203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203	487-0273
ゆかり酒造(山崎町42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42	487-0274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75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76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77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78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79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0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1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2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3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4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5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6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7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8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89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0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1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2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3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4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5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6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7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8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299
ゆかり酒造(山崎町138番地)	浜松市東区山崎町138	487-0300

자료 : 하마마츠경제신문(2022.1) 및 하마나코 칸잔지 온천관광협회

- o 실증실험 기간 동안 칸잔지 온천의 숙박 시설을 이용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하마나코 Pay 1,000포인트(1,000엔 상당) 제공
  - ※ iOS, 안드로이드 등 전용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숙박 시설에서 배포한 QR 코드를 읽으면, 숙박 정산 시 포인트가 적립됨
- o 본 실증실험은 핀테크 업체인 피노벨리가 제공하는 디지털 지역 통화 플랫폼 <MoneyEasy>\*를 활용
  - \* 스마트폰 앱 및 QR 코드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저비용(별도의 단말기 불필요)으로 디지털 지역 통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
- o 본 실증실험 종료 이후, 지역 상품의 판매 촉진 및 관광 Maa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을 위한 실증 실험 등도 검토 예정

### Ⅲ 시사점 및 제언

#### 가 국내 핀테크 지원 정책과 비교 분석

- 우리나라와 일본은 핀테크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10년 중반 전후, 그 파괴적 혁신성을 인지하고 매년 관련 정책 발표 중
- 핀테크 산업정책 초기 일본\*은 국정 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일부 과제로, 한국은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하는 양상을 보임
- \* 일본의 <일본 재흥 전략>, <미래 투자 전략> 및 <성장 전략>은 핀테크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투자, 경제 대책 등을 포괄한 패키지 형태

####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발표시기	제목	주요내용	발표처
2015.1	IT·금융융합 지원방안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	금융위원회
2016.10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및 각종 규제와 관행 재검토	금융위원회
2017.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 지원	금융위원회
2018.3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핀테크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금융위원회
2018.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9.2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반적 혁신 및 경쟁 촉진	금융위원회
2019.6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금융분야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 촉진	금융위원회
2019.9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관련 지침	금융위원회

2020.7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디지털금융 산업·거래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강화	금융위원회
2021.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 요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	금융위원회
2021.7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금융권 AI 활성화 및 AI 기반 금융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위원회
2021.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운영 지침 개정	소비자 편의·보호방안 시행 및 API 의무화 시기 유예	금융위원회
2022.1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전문기관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2022.8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데이터 확보, 제도 정립, 신뢰 강화를 통해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취합·정리(2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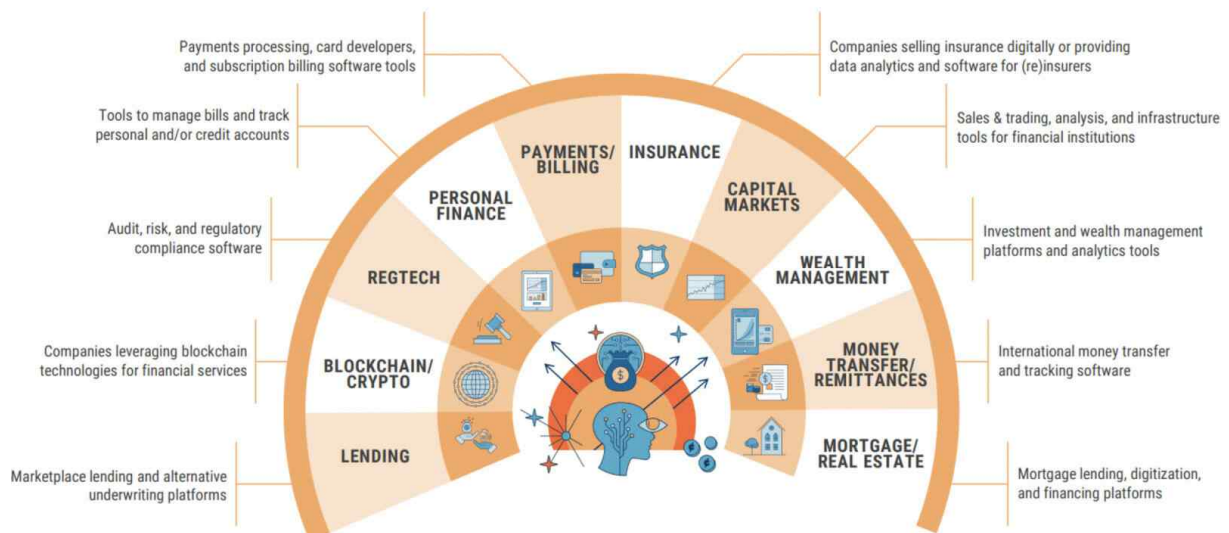
- 핀테크를 포함하는 금융 분야는 시장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태생적으로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분야
- 이에 양국은 핀테크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수립해옴
- 그러나 규제만으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균형 유지가 중요
- 이런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된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처의 역할이 분산된 일본이 향후 진흥 측면에서 더 유리함
  - ※ 일본은 내각부가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마련 후 금융청, 협회 등 유관 부처가 후속 정책을 수립
- 향후 우리나라는 규제(금융위원회) 및 진흥(과기부, 산업부 등)으로 양분하여, 보다 정책 전문성 및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



## 나 | 국내 핀테크 산업 정책 제언

- 핀테크는 대출, 암호화폐, 개인금융, 지급/결제, 보험 등을 인간의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핀테크의 응용 영역>



자료 : CBS Insights

- 고부가가치성은 기업이 린스타트업\* 등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현장 구현하여 이를 검증해야 하나 복잡한 금융규제에 묶어 어려운 실정
  - \* Lean Startup은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개발 프로세스
- 이에 일본은 2017년 6월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도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日금융청 내에 <FinTech 실증 실험 허브>\* 설치
  - \* 이전 사례가 없는 실증실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
- 본 허브는 대중소 기업의 쇼핑, 보안, 투자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된 핀테크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면서 일본의 핀테크 혁신 가속화

※ 분야별 지원 사업 종료 이후, 결과 실증 결과를 발표하여 유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

### <FinTech 실증 실험 허브의 주요 지원 사례>

지원 사업명	지원기간
리얼 거스름돈 투자 서비스에 대한 실증 실험	2020.02~2020.04
▶ 쇼핑 등으로 생긴 잔돈을 상점 주변에 설치한 투입 박스에 넣어 투자하는 서비스 모델 검증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및 고객 관리에 관한 실증 실험	2020.05~2021.09
▶ 고객 위치, 생체 등 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보안성 확보 및 고객 관리 고도화 가능성 검증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은행 업무에 관한 실증실험	2020.08~2020.09
▶ 개인 구매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취득 방법 및 이용자 수용성, 기업 유용성 검증	
투자안내서의 고도화(HTML化)에 관한 실증 실험	2020.10~2021.08
▶ HTML 형식의 투자안내서를 이용한 안내서 고도화, 고객 편리성·만족도 제고 등의 가능성 검증	

자료 : 日금융청의 발표내용 요약·정리

- 우리나라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업 모델 검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
  - ※ 스타트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 데이터 제공 수준에 그쳐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
-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구현 및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증실험 지원책 검토 필요

## 주요 참고문헌

- 矢野経済研究所, 国内FinTech (フィンテック) 市場に関する調査を実施 (2019年), 2019.9
- SankeiBiz, フィンテック市場はまだまだ拡大する ベンチャーの競争は激化が必至, 2021.7
- ITmedia, 政治のアンケート回答者全員に電子マネー、最大で100万円 前澤氏の出資企業で, 2022.6
- キャッシュレス×DXマガジン, なぜ日本のキャッシュレス化は遅れているのか? 決済比率が低い理由とは, 2021.10
- 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 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 2021, 2021.3
- Japan Financial News, 2022年のフィンテックトレンドを大胆に予測 Fintech協会・貴志理事に聞いてみた, 2021.12
- 読売新聞, デジタル通貨 健康に活用...みずほなど 会津若松で第1弾, 2022.8
- 毎日新聞, キャッシュレス決済で逆襲 みずほ「Jコイン」の算段, 2019.3
- PR TIMES, グローバルモビリティサービスとアプラス FinTechを活用した新型マイカーローンの取り扱いを日本全国に本格展開, 2021.7
- PR TIMES, アニポスでペット保険プリズムコール®の請求が可能になりました。 , 2022.2
- PR TIMES, BHI、金融庁「FinTech実証実験ハブ」の結果報告, 2022.7
- ZDNet Japan, READYFORがシリーズCラウンドで総額17億円の第三者割当増資を実施, 2022.7
- 野村財団, FinTechと日本の証券・資産運用業, 2018.6
- Mizuho Research & Technologies, 改正銀行法が切り拓く金融サービスの未来, 2018.10
- FinTech Journal, 「2022年資金決済法等改正」のポイントとは? 弁護士が分かりやすく解説, 2022.9
- 日本暗号資産ビジネス協会, 『「金融審議会 資金決済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を踏まえた 電子的支払手段 (ステーブルコイン) に関する規律のあり方に対する提言』の公表, 2022.1
- Nomura Research, ステーブルコインを規制する初めての法律が成立, 2022.6
- アーンスト・アンド・ヤング・グローバル, ステーブルコインなどのデジタル化が進む金融サービスに対する改正法の概要, 2022.6
- 経済産業省, 省内横断組織として「大臣官房Web3.0政策推進室」を設置しました, 2022.7
- 第一生命経済研究所, Web3.0の衝撃-デジタル情報の所有が創り出す新たな世界, 2022.6
- あたらしい経済, 日銀の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 (CBDC)、概念実証フェーズ2へ, 2022.3
- CNET Japan, 三菱商事とNTTら、デジタル通貨「DCJPY」で企業決済の実証実験--関連作業を最大8割減, 2022.4
- 浜松経済新聞, 舘山寺温泉でデジタル地域通貨「はまなこPay」 キャンペーンで最大4000ポイント付与, 2022.1
- 日経ビジネス, 米PayPalのPaidy買収で注目、後払い決済「BNPL」が若い世代に広がりつつある理由, 2021.11
- Deloitte, Fintech 時代の新たな技術と今後, 2021
- BBC, Bitcoin consumes 'more electricity than Argentina', 2021.2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금 주목받는 일본 핀테크 벤처는?, 2021.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일본의 핀테크 시장을 탐내는 이유, 2021.11
- 은행법학회,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2022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